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7.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1열왕 3,5-6 7.7-12(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요즘 나는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 나의 기도 가운데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왜 안들어주신다고 생각하나요?

-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8/2(주일) 본당 30주년을 맞이하여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님의 초청피정이 있습니다.
피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0주년 기도봉헌과 성경읽기/쓰기 봉헌, 특별히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성모님 순례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새로이 사제로 서품될 때, 새 신부들은 사제서품 성구를 정합니다. 예수님의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 정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지요. 저는 제 서품 성구도 좋아하지만, 제 동기 신부 중 한 동기 신부의 서품 성구를 참 좋아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13,1) 왜 이 구절을 서품 성구로 정했냐고 그 동기 신부에게 물어보니 인간과 다르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 저 구절이 더 좋아졌고, ‘아 이 친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사제가 된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도 서품 성구를 정하셨다면 제 동기와 같은 구절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45년에 서품을 받으시고 1846년 순교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사제로서의 짧은 삶은 채 1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이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 교회의 신자들을 돌보셨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관아에 끌려가 가혹한 취조와 고문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시는데도 아랑곳하지않고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말씀하시며 천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끝까지 견디며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통해 들으니 “끝까지 사랑하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동기 신부가 하느님 사랑을 닮아 끝까지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국의 모든 성직자들이 세상 모든 사제가, 나아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전구 해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이상빈 알렉산델 신부님의 묵상글 인용)

